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계절과 물가

- 물가 변동성 완화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목 차

■ 계절과 물가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계절과 물가의 관계	2
3. 계절에 따른 연령별 물가 변동	4
4. 시사점	10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한 상 완 대 표 이 사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김 천 구 선 임 연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 계절과 물가

■ 개요

국내 소비자물가는 일부 품목의 수요와 공급이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아 매월 변동성이 크다. 물가가 매월 크게 변화한다면 가계는 지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며, 기존에 소비하던 재화를 저렴한 상품으로 대체함에 따라 소비자 효용 감소가 나타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품목별 물가의 계절성을 살펴보고 연령에 따라 물가가 매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계절과 물가의 관계

품목별로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0~2014년 평균)을 산출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은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문화·오락, 교육, 보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은 농산물의 작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여름철과 겨울에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주류·담배의 경우 제품 가격 및 세금 인상이 연초에 집중 반영되어 1, 2월에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의류·신발의 경우 계절이 바뀌며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집중적으로 출시하는 5월과 12월에 물가가 급등하였다. 문화·오락은 방학을 맞아 개인 및 단체 여행이 늘고 운동, 공연, 오락 활동 등 취미 생활이 늘어나는 7월과 12월에 물가가 크게 올랐다. 교육비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전기비연율 기준으로 37.6% 급등하였다. 독감 등 계절성 질병 발생과 관련 있는 보건비는 연초인 1월에 전기비연율 기준으로 21.6% 급등하였다.

■ 계절에 따른 연령별 물가 변동

연령별로 계절에 따른 물가 변동을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가구는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의 소비가 많아 월별 물가 상승률이 최대 9.2%에서 최소 -3.9%로 변동성이 매우 컸다. 60세 이상 가구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보건비 등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여름과 겨울에 물가가 특히 높았다. 30~50대 가구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신학기에 물가 부담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9세 이하 가구 보다는 컸지만 60세 이상 가구 보다는 작았다. 29세 이하 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물가 변동이 작았지만 계절이 바뀌며 의류비 지출이 늘어나는 5월과 12월에는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 시사점

가계의 소비지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물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효용 감소를 막기 위해 계절적으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는 품목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령층이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름철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 완화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비, 의류·신발, 문화·오락 등 수요측 요인으로 특정 계절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는 품목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장 감시 기능 강화 필요하다. 넷째, 주류·담배는 연초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개요

- (연구배경) 소비자물가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면 가계는 지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소비심리 위축, 소비효용 감소 등으로 이어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부 품목의 수요와 공급이 계절에 영향을 받아 월별로 변동성이 높음
 -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0~2014년 평균)을 전기비연율로 표현해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 최대 7.4%에서 11월 -2.6%로 크게 변동¹⁾
 - 물가가 매월 크게 변화한다면 가계는 지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가계의 불확실성 증가는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짐
 - 가계는 안정적 삶을 위해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²⁾이 있는데 물가가 매월 크게 변화한다면 가계는 지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짐
 - 가계가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가격 변동으로 소비지출이 매월 달라진다면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가계는 소비를 줄일 가능성
 - 평소 많이 소비하던 품목이 월별로 가격 변동이 심하다면 소비자들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저렴한 상품으로 대체 할 것이며 이 경우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
 - 또한 식료품, 교육, 보건 등 필수재의 가격이 매월 크게 변화한다면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의 소비를 줄인다는 점 역시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이어짐
 - 특히 고령층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저렴한 상품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물건을 사러 장거리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물가 변동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음
 - 청장년층의 경우 자주 소비 하는 물건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시간을 들여 인터넷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여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 반면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정보 검색이 서툴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므로 물가 변동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이 높음
- (연구목적) 품목별 물가의 계절성을 살펴보고 연령에 따라 물가가 매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

1)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년동기대비를 사용하지만, 본 보고서에 서는 물가의 계절적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대비연율 사용.
 2) 소득의 변동에도 사람들이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을 소비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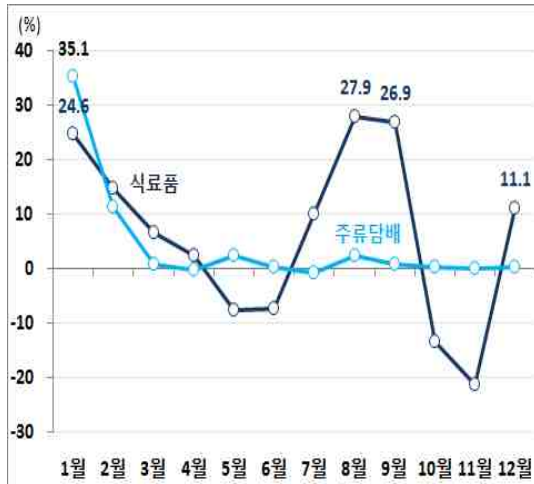
2. 계절과 물가의 관계

○ 계절에 따라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은 일부 품목이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과 수요가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가격 인상과 정부의 세금 인상이 특정 월에 집중되기 때문

- 품목별로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0~2014년 평균)을 산출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은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보건, 교육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하여 주거·수도·광열,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 통신 등 소비 항목은 물가 변동이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식료품은 농산물의 작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여름철과 겨울에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주류·담배의 경우 제품 가격 및 세금 인상이 1, 2월 등 연초에 집중 반영
 -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을 포함한 여름에 내리는 강수는 연 총강수량의 50~60%를 차지하고, 집중 호우로 오는 경우가 많음³⁾
 - 가뭄, 장마, 태풍, 한파, 폭설 등에 따라 공급이 영향을 받는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여 식료품 물가는 여름과 겨울에 급등
 - 주류·담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이 연초에 반영되어 1월과 2월에 물가 상승이 집중
- 의류·신발의 경우 계절이 바뀌며 새로운 옷 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5월과 12월에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문화·오락은 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과 12월에 물가 상승이 집중
 - 의류·신발의 경우 계절이 바뀌며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집중적으로 출시하는 5월과 12월에 물가가 급등
 - 문화·오락은 방학을 맞아 개인 및 단체 여행이 늘고 운동, 공연, 오락 활동 등 취미 생활이 늘어나며 해당 시기에 물가가 오름

3) 기상청, 장마백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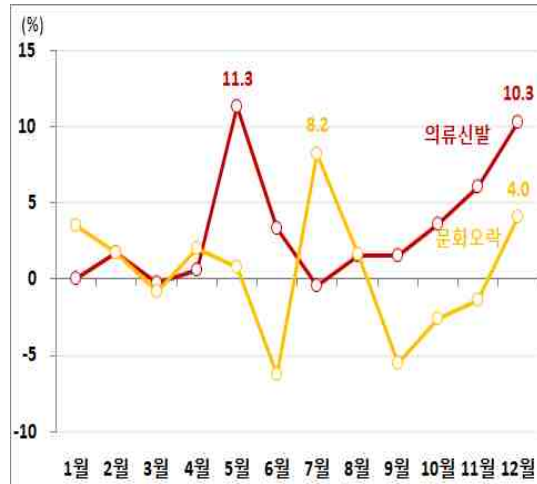
< 식료품, 주류·담배 물가 변동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 2) 2000~2014년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

< 의류·신발, 문화·오락 물가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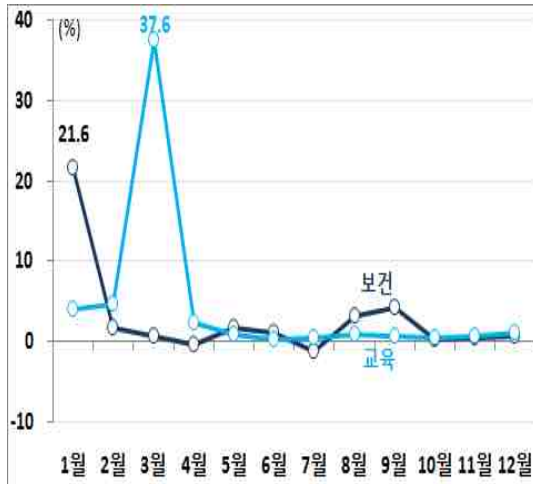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 2) 2000~2014년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

- 교육비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독감 등 계절성 질병 발생과 관련 있는 보건비는 연초에 물가 상승이 집중
 - 교육비는 다른 월에는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전기비연율 기준으로 37.6% 급등
 - 보건비는 다른 계절에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었으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발생과 관련 있는 1월에 전기비연율 기준으로 21.6% 급등
- 이외에 교통,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 통신 등 소비 항목은 물가 변동이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통신비는 모든 월에 걸쳐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가사용품·가사서비스는 물가상승률이 매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비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가 변동 보다는 국제 유가의 변화로 인한 변동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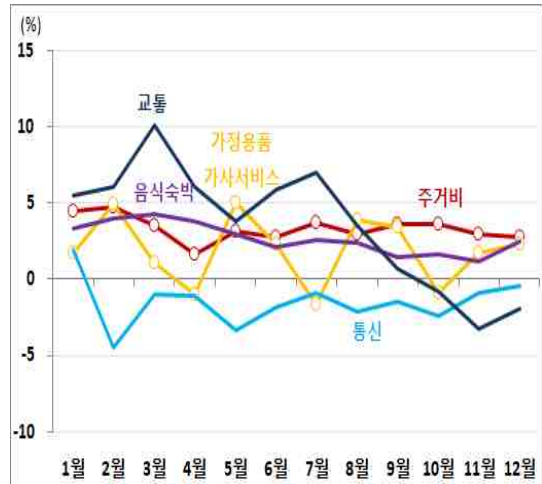
< 보건, 교육 물가 변동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 2) 2000~2014년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

< 물가의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는 품목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 2) 2000~2014년 월별 물가 상승률 평균.

3. 계절에 따른 연령별 물가 변동

1) 연령별 소득 수준

○ 연령별 소득은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으며 핵심 노동계층인 30~50대의 소득이 가장 높음

- 연령별 가처분소득은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가장 낮았음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구가 많은 60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70.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299.6만원 보다 크게 낮았음
- 핵심 노동인구가 주로 분포하는 30~50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00만원대 중 후반으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연령대임
- 아직 노동시장 진입율이 낮고 경력이 짧아 높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29세 이하 가구 역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음

- 월별로 가처분소득의 변동은 모든 연령대가 비교적 컸음

- 60세 이상 가구는 2월에 가처분소득이 148.6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8월에

가처분소득이 178.3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30대, 40대, 50대 가구는 모두 5월에 가처분소득이 각각 321.8만원, 351.3만원, 338.4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1월에 가처분소득이 각각 399.3만원, 421.6만원, 371.8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29세 이하 가구는 11월에 가처분소득이 200.4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3월에 가처분소득이 260.9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처분가능소득(2014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연령에 따른 월별 처분가능소득(2014년) >

(단위 : 만원)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54.2	399.3	421.6	371.8	170.9
2월	242.5	347.2	358.1	337.3	148.6
3월	260.9	338.8	365.7	343.9	158.9
4월	215.1	331.3	359.4	343.4	166.7
5월	204.5	321.8	351.3	338.4	177.5
6월	207.5	327.8	359.5	337.3	160.4
7월	230.3	342.2	376.2	369.0	160.6
8월	231.7	342.7	385.5	360.0	178.3
9월	236.4	344.3	379.0	351.4	177.9
10월	207.8	334.3	378.3	341.5	172.2
11월	200.4	341.0	368.1	344.0	178.2
12월	225.7	357.5	392.0	349.7	172.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2)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 고령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등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고령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상당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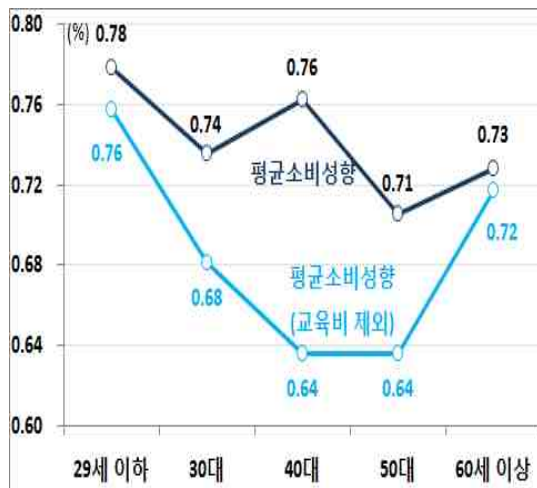
- 개인은 근로 세대일 때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보다 높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출 부담이 커 중장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고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평균소비성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60세 이상 고령층은 소득 여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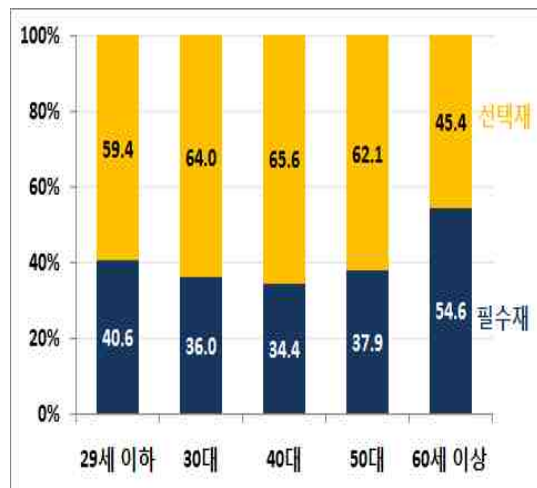
-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54.6%로서 매우 높은 반면 선택재 비중은 45.4%로 낮았음
-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은 선택재의 소비 비중이 60%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음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2014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연령별 필수재, 선택재 비중(2014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계절적 물가 변동이 큰 품목의 소비 비중이 높았음

-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의 소비는 60세 이상 가구가 가장 높았음
- 계절에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 6개 항목⁵⁾의 비중은 60세 이상 가구가 전

4) 필수재(Necessitie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재화. 선택재(Luxuriou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재화. 구체적으로 필수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등이며 선택재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임.

5)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보건, 문화·오락, 교육.

체 소비 지출 중 약 45.1%를 차지

- 전체 소비 지출 중 계절적 물가 변동이 큰 품목의 지출 비중은 30~50대 가구가 약 44.5%, 29세 이하 가구가 약 35.3%로 60세 이상 가구보다 낮았음

○ 계절적 물가 변동이 큰 품목 중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식료품, 보건의 소비 비중이 높았으며 중장년층(30~50대)은 교육비가 29세 이하의 의류, 문화·오락의 소비 비중이 높았음⁶⁾

-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보건 등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타 연령층에 비해 육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특성으로 의료에 관련된 지출 비중이 높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전체 소비 지출 중 16.9%이었음
 -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문화·오락 등의 소비 비중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9세 이하 가구는 의류비, 문화·오락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9세 이하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잦은 외식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는 낮았음
 - 방학 기간을 이용한 여행과 운동, 공연, 오락 활동 등 취미 생활을 많이 즐겨 29세 이하 가구는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이 높음

6) 가계의 지출 구조가 유사한 연령대인 29세 이하, 30~50대(3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구분.

< 계절적 물가 변동이 큰 품목 소비지출 비중(2014년) >

	전체	29세 이하	30~50대	60세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0	9.8	12.8	20.6
주류·담배	1.1	1.4	1.1	1.4
의류·신발	6.6	8.3	6.8	5.3
보건	6.8	5.9	5.9	11.3
오락·문화	5.7	7.3	5.8	4.9
교육	10.2	2.7	12.1	1.5
계절적 물가 변동이 큰 품목 소비지출 비중	44.4	35.3	44.5	45.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3) 계절에 따른 연령별 물가

○ 60세 이상 가구는 매월 물가 변동이 매우 컸으며 특히 여름과 겨울에 물가 상승률이 높았음

- 고령층은 월별 물가는 최대 9.2%에서 최소 -3.9%까지 급등락 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음
 -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기비연율 물가상승률이 1월 9.2%, 8월 6.2%, 9월 6.1%에서 10월 -2.3%, 11월 -3.9%로 변동하는 등 매월 물가가 급등락
 - 30~50대 가구는 월별 물가상승률이 최대 6.9%에서 최소 -2.3%로 변동
 - 이에 반해 29세 이하는 월별 물가상승률이 최대 6.1%에서 최소 -1.4%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았음
- 고령층은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보건비 등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여름과 겨울에 물가가 특히 높았음
 -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 식료품 가격 변화에 민감
 - 연초인 1월은 고령층 가구가 많이 소비하는 보건비 상승 부담까지 겹쳐 전기비연율 물가상승률이 9.2%를 급등

○ 30~50대 가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물가 부담이 컸으며, 29세 이하 가구는 계절이 바뀌며 의류비 지출이 늘어나는 5월과 12월에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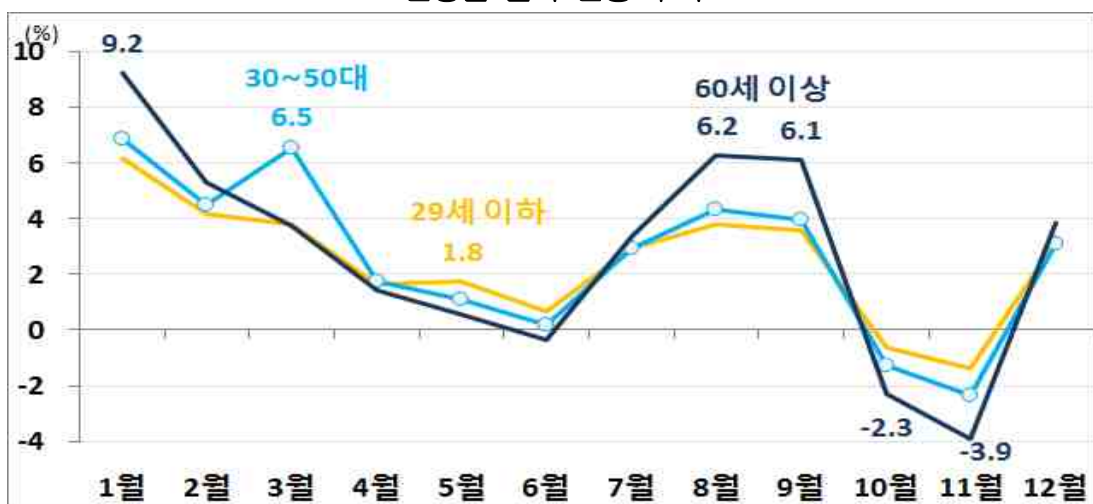
- 30~50대 가구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물가 부담이 가장 컸음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중장년층 물가 상승률은 전기비연율 6.5% 올라 다른 연령층을 크게 능가
-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9세 이하 가구 보다는 컸지만 60세 이상 가구 보다는 작았음

- 20세 이하 가구는 상대적으로 물가 변동이 작았으나 계절이 바뀌며 의류비 지출이 늘어나는 5월과 12월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 29세 이하 가구는 물가가 상승(하락)할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적게 상승(하락)하지만 5월과 12월은 물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올랐음
- 계절이 바뀌며 여름과 겨울로 접어드는 5월과 12월에 소비자들의 의류, 신발 구매가 늘어 물가가 상승
- 문화·오락은 방학을 맞아 개인 및 단체 여행이 늘고 운동, 공연, 오락 활동 등 취미 생활이 늘어나며 물가가 오름

< 연령별 물가 변동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2) 2000~2014년 물가 상승률 평균.

< 연령별 물가지수 산정방식 >

- **연령별 물가 정의** : 연령별 물가란 각 연령층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로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품목과 구입하는 양에 따라 차이 발생
- **산정방식** : 각 연령이 직면하는 물가를 산정하기 위해, 연령별로 각 항목의 소비지출구성과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계산

< 연령별 물가지수 산정방식 >

$$CPI_{\text{연령별}} = \sum_{i=1}^n CPI_i \times \frac{q_{i,t}P_{i,t}}{\sum_{i=1}^n q_{i,t}P_{i,t}}$$

$q_{i,t}$ = 기준시점 t에서의 품목 i의 소비수량
 n = 12가지 소비지출품목 : 식료품, 주류·담배,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가사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양·오락, 교육, 외식·숙박, 기타

3. 시사점

- **가계의 소비지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물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효용 감소를 막기 위해 계절적으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는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첫째, 고령층이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고령층의 임금 및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고령층이 보다 쉽게 인터넷직구, 인터넷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구매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물가의 지속적인 변동에 물가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
- 고령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적극적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 등 고령층의 임금 및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

둘째, 여름철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 완화 대책이 요구됨

- 여름 강수량에 민감한 농산물은 수확량 변동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및 인플레이션 대응력의 신속성 확보를 통해 물가 변동성 완화를 도모
 - 강수 등 기상재해에 강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배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
 - 신선식품에 대한 저장 및 보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신선식품에 대한 해외 공급원을 확보하여 기상재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응력 마련

셋째, 교육비, 의류·신발, 문화·오락, 보건비 등 수요측 요인으로 특정 계절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는 품목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장 감시기능 강화 필요

-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교납입금, 학원비 등 교육비 인상으로 중장년층 가계의 부담이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교육기관들의 담합으로 인한 물가 인상 억제
- 휴가철 부당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연쇄상승 억제 필요
 - 최근의 물가안정세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적 물가안정 구조 정착과 시장 감시기능 강화 등 꾸준한 중장기 구조개선 추진

넷째, 주류·담배는 연초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 연초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편승하여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부의 지도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낮추어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연령별 가계지출 구조(2014년)

(%)

	전체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0	9.8	12.4	12.7	13.2	20.6
주류·담배	1.1	1.4	1.1	0.9	1.2	1.4
의류·신발	6.6	8.3	7.2	6.5	6.7	5.3
주거·수도·광열	11.4	17.1	10.6	9.5	10.8	16.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3.9	5.0	3.6	3.7	4.5
보건	6.8	5.9	6.1	5.5	6.4	11.3
교통	12.8	12.4	14.7	12.8	12.9	10.2
통신	5.8	6.4	5.8	5.8	6.4	4.6
오락·문화	5.7	7.3	6.6	5.6	5.5	4.9
교육	10.2	2.7	7.5	16.6	9.8	1.5
음식·숙박	13.1	15.7	13.7	13.1	14.1	10.3
기타	8.5	9.1	9.3	7.3	9.3	8.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부록-2 > 연령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체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7.4	6.1	6.8	6.8	7.2	9.2
2월	4.6	4.1	4.5	4.5	4.5	5.3
3월	6.0	3.8	5.3	7.8	5.7	3.7
4월	1.7	1.6	1.7	1.8	1.8	1.4
5월	1.0	1.8	1.4	1.0	1.0	0.6
6월	0.1	0.7	0.3	0.1	0.1	-0.4
7월	3.0	2.9	3.0	2.9	3.0	3.4
8월	4.7	3.8	4.2	4.2	4.5	6.2
9월	4.3	3.6	4.0	3.8	4.2	6.1
10월	-1.5	-0.6	-1.1	-1.2	-1.6	-2.3
11월	-2.6	-1.4	-2.0	-2.3	-2.7	-3.9
12월	3.2	3.2	3.2	3.0	3.1	3.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1)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비연율 사용.

2) 2000~2014년 물가 상승률 평균.

< 부록-3 > 가계동향조사 품목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식료품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주류·담배		주류 담배	오락·문화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주거·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보건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기타 상품서비스